



# 칼빈주의 유아교사: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가르치는가?

황 명 숙 \*

## I. 서론

II. 칼빈의 제네바: 그 시대의 교육, 교리문답, 교사

III. 효율적인 아동교육

IV. 칼빈주의 유아교사

## I. 서론

아동교육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여러 현장 속에서 선교 열정을 지니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봉사와 교육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과연 그 열정과 노력 만큼의 효과가 거두어지고 있는가? 실제로 이 세계의 곳곳에서는 많은 불우한 어린이들이 교회나 그와 연결된 기관들을 통하여 배고픔을 해결하고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 먹을만큼 먹고 따뜻한 담요에 덮인 채 잠이 든 어린이들의 모습은 평화와 사랑 그 자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식주의 도움만으로 성인들의 할 일은 끝난 것일까? 그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삶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하여지고 있는가?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어지고 있는가? 기독교의 이름아래 행하여지고 있는 아동교육 기관과 일반 아동교육 기관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원하는 교사가 그의 열정을 다 바쳐 만들어내는 교육과 그 사랑의 밑바탕이 없는 교사의 교육 사이에는 분

\* 광신대학교 기독교아동학과 조교수

명 다른 점이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다를 것이다. 어린이들의 경험의 질적 수준이 다를 것이다. 교육의 효과 또한 달라야 할 것이다.

어린이 보호와 의식주 해결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단계에 들어서면 선교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주춤하게 된다. 그 선교열정과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정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 조화롭게 합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로 교육의 주체인 아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아동의 특수성에 따라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던 칼빈에게서 아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근본 요소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개혁가’로 혹은 ‘교사’로 불리는 칼빈, 그의 개혁의 중심을 차지하는 부분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통한 내적인 강화없이 종교 개혁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칼빈은 교육기관의 개발을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sup>1</sup>. 그의 그러한 노력은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는 제네바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나라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요소들로는 교육철학, 교과 과정, 교수 방법, 교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칼빈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떠한 교육내용을 마련했었는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방법을 따로이 고안하였는가? 누구로 하여금 이러한 근원적인 부분을 담당하도록 했는가? 아동들을 위하여 합당한 내용이며 방법이었는가? 오늘날 아동교육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이상적인 교사상, 교수방법에 비추어 볼때 일치된 관점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시대적, 문화적 격차가 큰 칼빈의 제네바와 오늘의 교육사이에 어떠한 접목이 가능한가?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갖춘 칼빈주의 유아교육사상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현 시점의 한국의 교육은 역사적으로 받아 내려오는 민족성향, 전통, 관습들과 사회의 각 부분마다 쌓인 문제들이 맞물린 가운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모들의 스트레스와 압력 때문에 아동교육은 얼킨 실타래의 실가닥조차 찾지 못 할 정도의 난점에 봉착해 있다. 많은 교육 현

<sup>1</sup> T. H. L. Parker, *John Calvin* (London: J. M. Dent & Sons, 1975).

장에서 조기교육, 영재교육, 특수기술개발의 미명하에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학습과 여러 종류의 비효과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다. 아동기의 꿈, 즐거움, 조화로운 발달은 없어진지 오래다. 기독교 아동교육 기관이 이러한 전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반이 굳지 못한 관계로 실제로 그 흐름에 더 쉽게 휩쓸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어른을 위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교육 아닌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이야 말로 기독교 아동교육의 실체를 확립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 사랑의 에센스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시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글의 순서는, 먼저 칼빈의 교육에의 관점, 특히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 시도들을 조사해 보고, 현대의 일반적인 아동교육의 특수성, 교수방법, 교사상을 정리 해 본 다음, 칼빈주의 아동교육자의 바람직한 상을 꾸며 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광신(光神)의 문을 나서서 여러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동교육을 담당할 학생들의 앞길을 위한 제언으로 글을 맺기로 한다.

## II. 칼빈의 제네바 : 그 시대의 교육, 교리문답, 교사

칼빈의 글을 살펴보면, 제네바에서의 개혁에 있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함을 절감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게 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이, 일의 성격에 관계없이, 성경에 의해 인도를 받아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과업이나 기관이거나 그 자체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었다. 주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우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었다. 따라서 교육도 그 자체가 끝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교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교육이라는 수단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땅히 섬기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것이었다.<sup>2</sup>

<sup>2</sup> T. M. Moore,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John Calvin,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III, 1992, pp. 140-155.

## 1. 교리문답에 대하여

칼빈은 종교개혁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옛 사상과 습관에 젖어있는 신도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순수 교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개혁에 열심을 다하고 굳건한 신앙을 소유한 신자들도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하고 쉽게 신앙내용을 표현한 제1차 교리문답을 쓰게 된다. 그리고 제2차 교리문답은 실제 목회현장에서의 적용 과정을 겪고 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을 다르게 하여 쓰여지게 되었다.<sup>3</sup>

칼빈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경건한 교리에 대한 영원 불변의 일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위한 단일 형태의 교리문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들이 교리에 있어서 어떠한 일치를 가지고 있는지 교리문답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으며 교회 나름대로 여러형태의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오직 하나의 주만을 향하여 전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한 목적 아래 최선을 다해야만, 극단의 기만이 세상을 덮는 시점에서 어린이들이 그릇된 믿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진실된 기독교 교리를 심어주기 위한 교리문답의 필요성과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교사들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헌신이 요구됨을 밝혀 말하고 있다.

또한 독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그는 교리문답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기독교 신앙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다. 이를 수행하기위해 교회는 학교들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신도 개개인에게 각자의 가족을 잘 가르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주요 교리에 대해 어린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공적 규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를 규모있게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교리문답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정한 식서를 사용하였다.<sup>4</sup>

<sup>3</sup> 한인수(역), 갈벡의 요리문답 (서울: 도서출판경전, 1995).

<sup>4</sup> J. Calvin,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ume XXII (London: SGM Press, 1954), p. 88.



위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교리문답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들을 기독교 교리안에서 잘 가르치고, 덧붙여 잘 배웠나의 여부도 평가하기 위하여 교리문답이라는 규모가 갖추어진 양식이 필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둘째로, 어린이들의 양육을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공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가정과 학교에 대한 권면과 운영의 역할을 교회에 두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개념은 교회, 가정, 학교를 세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것이었다. 교회에서는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교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교회의 위탁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고, 학교는 역시 교회의 위탁에 의해 교회와 세상에서 필요한 기독교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그의 교육 개념은 교리적인 교육과 경건한 삶,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전인적이고 조화적인 것이었다. 이 조화적인 교육이 교회 안에서 통합을 이루도록 되어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부터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숙하여 신앙의 목표에 이를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에 의해” 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sup>5</sup>

## 2. 배우는 자에 대하여

칼빈은 인간은 배우는 천성을 지닌 걸로 보았다.<sup>6</sup> 칼빈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계속 그를 그가 창조한 모든 곳에서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셨다.<sup>7</sup>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 변화된 삶으로 그 배움의 열매를 나타내어 보이기도 한다. 칼빈은 배움으로 인해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sup>5</sup>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서울: 성문 출판사, 1990), p. 11.

<sup>6</sup> 상계서, 2.2.12.

<sup>7</sup> 상계서, p. 95.

방법이 바뀌는 진정한 수준의 교육을 원했다. 이러한 진정한 교육의 결실을 위해서는, 칼빈은 배우는 자에게도 가르치는 자와 마찬가지로의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을 교수-학습의 현장에만 축소시키지않고, 교회를 통한 모든 경험들 즉 말씀의 가르침, 성례전에의 참여, 올바른 삶의 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험의 통합으로 생각한 칼빈이 배우는 자의 자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배움을 위한 공적인 모임에의 진지하고 활발한 참여이다.

자만심이나 거부감, 경쟁심으로 인하여 혼자 개인적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더라도 충분히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공중 집회를 멀리하며 설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의 거룩한 유대를 풀기에 전력을 다하므로 이 신성치 못한 분리에 마땅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가장 타락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우리 사이에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꺼려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고, 높이 평가하셨다.<sup>8</sup>

칼빈은 공적인 배움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배움을 향한 마음속 욕구를 증시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를 어린 이들은 주일날 교리문답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익히기 시작한다. 배움의 본성과 중요성에의 이해가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의 공적인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이 교리문답의 어린이 응답 속에도 드러나 있다. Reformed Studies

목사 : 우리가 성서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아이 : (우리의) 굳은 확신을 가지고 성서를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로써 받아들여야 하며, 올바른 순종 안에서 이에 복종해야 하고 참되고 온전한 열정으로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따르며 이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서를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sup>9</sup>

둘째로는 공적인 참여와 함께, 배우는 자는 성경을 혼자 연구하는데 열

<sup>8</sup> 상계서, p. 23.

<sup>9</sup> 한인수, 1995, p. 195.



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어릴적부터의 교리훈련의 중요한 부분으로 아래 목사와 어린이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다.

목사 :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읽기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아이 : 물론입니다. 먼저 신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sup>10</sup>

성경의 제자가 되고자하는 이 읽고 생각하는 과정을 혼자 할 경우, 잘못된 해석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공적인 배움의 자리에의 참여와의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중요시 한 점은, 배움이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열매로 이어지도록 배우는 자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움에는 그 배움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따라야한다. 하나님에의 순종없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 없이 삶에 적용되어 종교적인 삶의 경험들로 표현되는 것을 포함한다.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배운 자의 전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따름을 의미한다.<sup>11</sup>

교육은 경전을 따르는 생활 교훈이어야 한다. 어린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하는데 단지 머리와 말로 바르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성경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메시지를 생활 속에 지녀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가르치는 자들은 이러한 교육의 진정한 뜻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야 할 것이다.<sup>12</sup>

<sup>10</sup> 상계서, p. 196.

<sup>11</sup> P. Y. Dejong,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1967, p. 200.

<sup>12</sup> 야고보서, 1:22-25, 7:21-27.

### 3. 가르치는자에 대하여

칼빈은 교회 안의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가지로 제시한다. 목사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직분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전하는 핵심적인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중심으로 교사와 장로, 집사의 직을 겸한다고 할 수도 있다. 교사는 목사와는 달리 치리나 성찬의 집례나 행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성경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건전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유지되도록 도와야 한다.<sup>13</sup> 가르치는 책임은 결국 교사와 목사에게 지워진 것이다.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맡은 자들로 이 두 직분 없이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고 보았다.<sup>14</sup> 보다 젊은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도록 맡겨졌다. 믿음의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에서 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들음의 사건은 결국 그것을 전하는 “인간이라는 도구”에 의해 일어난다.<sup>15</sup>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고 교육하시되 이를 인간을 통해 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목사와 교사들이 그들이다.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점은, 말씀에의 충실성과 준비하는 근면성이 물론 첫째 조건이다. 둘째는, 학습목표에 대한 것이다. 그 당시 제네바에서 목사나 교사들이 어떤 주제들에 따라 특별히 목표를 세워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진 않으나 교리문답을 살펴 볼 때, 거기에는 교육의 목표가 아래와 같이 뚜렷이 세분화 되어 있다.

1. 어린이는 구두발표를 해야한다.
2. 발표의 내용은 교리문답의 정확한 종합이어야 한다.
3. 이 발표는 온 교회 앞에서 그 어린이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목표는 각각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인 부분을 대표하며 이 세 목표가 통합하여 전인적인 목표를 이루게 된다. 교사는 그가 가르치는 자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도를 가지고 있을 때 효과적인 교수를 할 수 있다고 칼빈은 생각했다. 또한 가르침은 인지나 행동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인지, 행동적인

<sup>13</sup> 존 칼빈, 1990, 4.3.4.

<sup>14</sup> 상계서, 4.1.1-4.

<sup>15</sup> 상계서, p. 21.



측면에 감정적인 면도 합해져야만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sup>16</sup>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전인적인 교육, 인지와 감성의 불가분의 관계, 통합적인 교육과정 등의 교육적 요소가 다 들어 있다.<sup>17</sup>

세째로, 칼빈이 고심한 점은 적절한 교수 방법이었던 것 같다. 교수 방법에 있어서의 그의 관점을 알아보는 것은 그가 교육의 현장에서 이용했었던 방법들로부터의 추론을 통해서이다. 그가 이용했던 강의, 문답, 독서, 개별 지도, 개인 명상 등의 다양성을 볼 때 가르치는 대상, 내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교수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인간다운 방식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에게로 이끄신다.”고 가르치는 방식의 적절함을 말하고 있고 “친숙한 교수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낀다.”고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가르치려하는 교육의 내용, 즉 기독교의 기본교리는 교수 방법이 적절할 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제1차 교리문답과, 목회의 경험이 더해진 후 쓰여진 제2차 교리문답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칼빈의 어린이 교육에의 관점을 교수방법의 측면에서 더 깊이 찾아 볼 수 있다.

제 아무리 미개하고 또 야만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발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미뤄 보아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위엄을 인식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즉 그분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그 무엇보다도 존경하며 모든 두려움과 사랑,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sup>19</sup>

1. 목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2. 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3. 목사: 어찌하여 그러한가?
4.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

<sup>16</sup> Moore, 1992.

<sup>17</sup> C. Seefeldt,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7).

<sup>18</sup> 존 칼빈, 1990, p. 23.

<sup>19</sup> 한인수, 1995, p. 25.

372 정규오 목사 은퇴 기념 논총

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고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영위함은 지당한 일입니다.

5. 목사: 인간의 지고선은 무엇인가?
6. 아이: 위와 같습니다.
7. 목사: 왜 그것을 지고선이라고 부르는가?
8. 아이: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상태는 야수들의 그것보다 더 불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 목사: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구나.
10. 아이: 그러합니다.
11. 목사: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올바른 인식이란 어떠한 것인가?
12. 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을 인식할 때 그러합니다.
13. 목사: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14. 아이: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곤경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sup>20</sup>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내용들이다. 형식을 살펴 보면, 1차에서는 서술형이었던 것이 2차에서는 목사가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하는 대화체로 바뀌고 있다. 효과적인 어린이 교육을 염두에 두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문답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 ‘어찌하여’ 라는 질문(No. 3, 7)들이 자주 등장하며, 아이의 대답내용으로부터 다음의 질문을 끌어내는 교수 전략(No. 11, 13)도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유도적인 질문의 형태로 목사의 입을 통해 아이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 목사는 일정한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고 그 대답의 내용을 될수 있는 한, 많이 질문 속에 넣어 아이에게 묻는다(No. 9).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질문자와 대답자의 위치가 바뀐듯이 보이기가까지 하다(No. 9, 10). 질문자가 내용을 다 말하고 어린이의 대답은 오직 “그러합니다”(It is so), 뿐이기 때문이다. 유도적인 목사의 질문 속에 거의 모든 적극적인 탐구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어린이에게는 소극적인 긍정의 역할만을 남겨주고 있다. 배우는 주체인 어린이에게 이렇듯 마음이 담기지 않고 입으로만 대답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배움의 과정에서 배우

<sup>20</sup> 한인수, 1995, pp. 101-102.

는 사람이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리문답의 내용은 명료,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효과적인 교수 방법들, 즉 '왜' '어찌하여' 라는 물음으로 사고를 촉진, 심화시키기도 하고, 다음 질문을 어린이의 말 속에서 끌어 내어 내용이 연결되도록 하는 시도들도 덧붙여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배우는 어린이가 배움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할 때 어린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칼빈의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등장 이후 점차 권위가 떨어지다가 얼마 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유를 후세의 연구자들은 실용성에 둔다. 현장적용의 실용성보다는 교의학적인데 치중하여, 어린이들이 소화하기 힘든 주지주의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그 주 이유로 대두 된다.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 교리문답을 18세 이상의 성인 교육에 사용해 보기를 권하는 의견도 있다.<sup>21</sup>

칼빈은 하나님을 위한 그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 상황에 따라 알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대적 상황적 도전에 따라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기독교 진리 자체가 기본 내용이 되나 교수방법에서는 배움의 주체인 어린이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이 된다. 어린이들을 알아야 하고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의 바탕 아래 교육을 제공하는 올바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 원리를 깨닫고 효과적인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칼빈이었다. 어린이로 하여금 가장 즐겁고, 효율적으로 배우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배움의 주체인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들을 다음 장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 Ⅲ. 효율적인 아동교육

나는 학생들이 밭이 자연에 굳게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땅에서 있고 그 머리가 하늘로 향하고, 한결같은 눈길로 하늘의 비밀을 읽어내며 그 마음이 땅과 하늘을 품고 온갖 풍요로운 형상들로 가득찬 땅과 자연의 생활을 즐겨워하고 동

<sup>21</sup> 상게서.

시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을 연합하는 그런 사람을 교육하고 싶다.<sup>22</sup>

## 1. 교육과 놀이

Kindergarten(어린이 학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리벨이 말하는 교육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의 법칙(The law of unity)을 이해하고 그 법칙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조화의 법칙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과 인류, 자연, 하나님사이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류의 도덕성,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는 교육이란 내부와 외부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삶의 행위와 지식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아동이 행함으로써 배워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영아기에 행함은 내적인 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감각의 능력을 훈련하고 닦아 아동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주위 세계와 연결하도록 한다. 좀 더 자라서 아동기에는 현저하게 배우는 시기로 외부의 것을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아들여 내면화시키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sup>23</sup>

이와 같은 프리벨의 생각은 외부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썩어 뜯은 배움이 내재화의 과정을 거쳐 성숙하여 다시 외부로 전해 질 때 완전해 진다고 하는 비고스키식 유아교육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sup>24</sup> 특히 이 과정들은 칼빈이 교리문답자들에게 강조했었던 세가지 배움의 자세와 아래와 같이 일치함을 보인다.

1. 공적인 배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외부 환경의 사회적인 활동에서 배움이 시작됨),
2. 혼자하는 읽기와 명상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고(내재화의 과정으로 배움이 성숙함),

<sup>22</sup> F. Froebel, *Autobiography of Friedrich Froebel* (London: Swan Sonnenschein & Co., 1908),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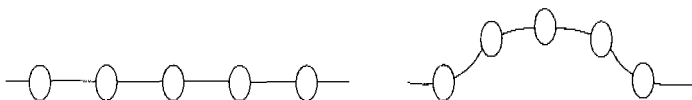
<sup>23</sup> 이상욱, *프리벨과 기독교 유아교육* (서울: 양서원, 1996).

<sup>24</sup> L. S. Vygotsky, *Play and its role i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Soviet Psychology*, vol. 5(3), 1967, pp. 6-18.

3. 그 진리의 말씀은 생활 속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외부의 사회적인 활동현장을 통해 그 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냄으로써 완전해짐).

한 어린이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지식은 행함으로써 얻어지는데, 어린이들의 행함에는 경험, 놀이, 자기활동, 관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 놀이는 경험, 자기 활동, 관찰, 탐색등 모든 다른 활동들을 그 안에 포함한다. 인간 미래의 모든 싹이 어린이 속에 있고 이 미래의 싹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싹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프뢰벨과 비고스키는 그 방법의 근원을 유아의 사회적인 놀이(상호작용을 통한 행함)에서 발견한 것이다. 비고스키의 놀이이론에 대해서는 본장의 뒷부분에 더 자세한 고찰이 있겠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어린이는 발달적 특성에 기초하고 논리적, 과학적으로 준비된 환경 내에서 민감하게 관찰하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에 집중하고, 반복하여 시도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 가는 과정 중에, 자신의 정상화를 이루게 된다. 인간 발달의 최고도의 목적은 최고도의 자아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 자아의식은 그 전제조건으로 자기지식을 내포하며 이 자기지식은 오로지 자기활동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이라는 작품 안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사람도 자기활동의 열매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스스로 하는 놀이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sup>25</sup> 칼빈의 아동 교육에서 결핍된 부분이 바로 이 놀이적인 요소이다. 이상 언급된 프뢰벨, 몬테소리, 비고스키 등의 놀이에 대한 고찰은 칼빈이 고심했던 효과적인 어린이 교육을 위한 방법론에 기본을 제공할 수 있는 관점들이다.



주지주의적 방법이 어린아동에게 왜 교육의 효과가 적은 것일까? 교사가 직선 위에 한 줄로 늘어놓은 구슬과 둥그런 선 위에 놓은 구슬을 쉰 때의 놀라움에 가득 찬 어린이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가?(위의 그림 참조)

<sup>25</sup> M. Montessori, *The absorbent mind* (New York: A Delta Book, 1967)

어린이들은 그 긴 직선 위의 구슬과 그 직선보다 훨씬 짧아 보이는 등근선 위에 놓인 구슬의 수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바비인형이 엄마에게도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의 생각하는 법이 다른 것이다. 그들의 생각하는 단계가 다르다.<sup>26</sup> 그 단계를, 어린이들과 다른 단계에서 생각하는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놀이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 단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교사는 그 단계에 맞는 교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교사는 그 단계에 맞추어 다음 단계의 발달로 연결될 적절한 경험을 어린이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이 제공하는 경험들이 어린이 수준에 적절치 못한 것일 때 그 결과로 어린이는 즉각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이중의 해를 입는다. 어른들이 제공하는 경험이 어린이들의 사고 구조와 너무 다를 때, 어린이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다.<sup>27</sup> 이런 상태가 계속될 때 우선, 그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아프게 되기도 하며 장기적으로는, 배움 자체에의 열망을 잃어 버리게 된다.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탐구적이다. 그래서 몰입한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몇 년의 학교 경험 이후에는 이 속성을 잃어 버린다. 학교에서의 부적절한 경험에 시달린 결과이다. 놀이 속에서 어린이의 수준을 알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놀이 속에서 어린이의 현수준을 알 수 있고 어린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sup>28</sup> 이 놀이요소가 배움의 과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배움 자체의 상실을 의미한다. 놀이는 어린이의 삶이며 배움의 장이다.

## 2. 배움의 장이 되는 놀이

놀이는 사회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어린이는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발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놀이하며 발달한다. 놀이는, 바로 그 속에서 근접 발달을 위한 가능한 범위(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가 창출되는, 발달의 원천이 된다.<sup>29</sup> 여기서의 범위는 어린이의 현 발달 수준

<sup>26</sup> L. Mitchell, *Young geographers* (New York: Stratford,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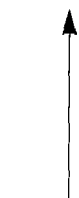
<sup>27</sup> J. Hunt, *Intelligence and experience* (New York: Ronald Press, 1961).

<sup>28</sup> D. Elkind, *Miseduca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89).

<sup>29</sup> L. S. Vygotsky, *Mind i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과 다음 일어날 발달 수준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다음 도달 가능한 발달 수준은 어른이나 좀 더 숙련된 놀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정도에 의해 측정되어 진다. 그러므로 근접 발달 가능 범위가 실제로 다음 단계의 발달로 이어지느냐 하는 실현 여부는, 사회 공통으로 공유하는 문화적인 틀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어린이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주로 놀이를 통해 일어나므로 어린이들의 모여 같이 하는 놀이가 바로 그 근접 발달 범위의 실현 과정으로 이용된다고 하겠다.

다음단계의 발달 수준



현실 세계의 전달, 전수  
(사회적인 상호작용중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짐)  
(예. 사회가장놀이)

현 발달 수준

어린이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얻는 사회-문화적 경험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이를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에 이용하는지는, 어린이들의 가장 놀이 속에 잘 나타난다. 언어를 비롯한 상징 체계들, 인지적인 틀, 그리고 실생활 지식들을 모두 포함하는 한 사회의 문화 세계는 보다 높은 발달 수준에 있는 사람들(부모, 형제들, 놀이친구들,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달이 된다. 이때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춤(dance)과도 같다. 배우는 어린이가 이 춤을 주도하고 발달 수준이 높은 상대방은 가까이에서 어린이를 주시하며 어린이의 동작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따라간다. 이런식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현장에서 그 짝이 튼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활동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그 어린이의 발달을 이끄는 것이다. 사회 활동의 장으로서 놀이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알아 가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협조 속에서 그들 세계를 확장시켜가는 필수적인 훈련을 하기 위한 기회를 준다.

### 3. 추상적 사고와 놀이

궁극적으로 이 놀이는 추상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방편이다. 내재적인 규칙을 포함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마치 실제인 것처럼 놀이하자는 것은 “추상적인 고등 사고를 발달시키는 주요 수단(means of developing abstract thought)”으로 생각된다.<sup>30</sup> 놀이 세계 속에서는 “생각이 사물로부터 분리되고 행동은 실제 놀이감에 의하기보다는 머리 속의 아이디어들에 의하여 일어난다(thought is seperated from objects, and action arises from ideas rather than from things)”.<sup>31</sup> 네모난 나무 블럭은 자동차가 될 수 있으며, 그 나무 블럭으로 운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린이는 그 나무토막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토막’이 ‘차’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놀이 세계에 들어가면 어린이들은 물체(object)의 겉 모습과 관계없이 의미(meaning)를 가지고 놀이한다. 이처럼 가장 놀이는 어린이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물체적 한계로 부터 해방되어 사고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그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러나 조직적인 방법대로 그 사고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

정리하면, 배움은 놀이 중에 일어 난다. 놀이 중의 경험들이 쌓여 어린이의 생각을 재 구성하게 되고 이는 발달로 이어진다. 직선 위와 곡선 위의 구슬세기에서 혼란스러워지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진리는 극히 추상적일 수 있다. 추상적인 사고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시기는 대략 15세 전후로, 이 이후에는 사고 능력의 질적인 변화는 더 이상 없다고 본다.<sup>32</sup> 15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학생에게 주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린 아동들에게 추상적인 진리의 이해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슬들을 직접 세봐야 함과 같이 놀이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접할 때 그 추상적인 진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추상적, 논리적인 사고능력이 촉진된다. 실제적인 놀이를 통한 추상적인 사고에의 접근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지름길이다. 이러한 어린이 발달의 기본을 이해하고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여 배움의 현

<sup>30</sup> Vygotsky, 1967, p. 17.

<sup>31</sup> 상계서, p. 12.

<sup>32</sup> J. Piaget,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Norton, 1962).



장과 근원적인 발달을 연결시켜주는 교사가 능력있는 유아교사이다.

#### 4. 능력있는 유아교사

어떤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졌으나 능력이 없고, 어떤 교사는 자격증은 없으나 능력이 있다. 어린이들은 자격증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교사가 자신들의 교사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접해보면 그냥 알아 버리기 때문이다.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아동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있는 교사의 특성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사와 어린이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 (individualized relationship) 이다. Maslow의 욕구의 피라미트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 선행되어야만 인간은 다음 단계의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실 내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어 개별적인 관심을 보다 더 충분히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sup>33</sup>

어린이와 교사 사이의 관계는 삶을 공유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브론펜브레너는 인간발달을 자라나는 생명체와 변화하는 주변환경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sup>34</sup> 어린이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속에서 매 순간 상호작용 해 나가며 자기라는 중심을 가꾸어 나가는 한편,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 환경들 속에서의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어린이는 행동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들 주위의 가깝거나(유치원, 가정) 먼(사회, 나라전반) 여러 환경들과 관련이 되어있기가 쉽다. 그러므로 교사는 어린이와 그의 여러 환경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어린이의 삶을 교사 자신이 경험하듯이 이해해야만 그 어린이 개인의 문제나 발달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삶을 공유하는 사이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으면 물리적인 힘도 지적인 힘도 자라지 않는다. 역사 속의 위대한 교사들은 사랑으로 가르쳤다.

<sup>33</sup> A. Maslow,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Press, 1971).

<sup>34</sup>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페스탈로찌의 학교에서는 친절이 주된 분위기를 이루었으며 체벌을 폐지했다. 그 시대로서는 놀랄 일이었다. 프뢰벨은 그의 첫 교육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은 나를 사랑하며 우리는 수업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sup>35</sup> 사랑이 있음으로 배움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현장들이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비구조적 교과 과정(flexible schedule)의 활용이다. 아동교육 현장에서는 아동의 개별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마다 문제가 다르며 그 해결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시간을 비구조화하고 집단 활동보다는 소그룹 활동을 위주로 시간 구성이 되어야 하고 아동의 새로운 관심과 욕구에 따라 활동을 확장하기도 축소하기도 하는 비구조적, 비지시적 지도 스타일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어린이가 배움이 가능하나 그 배움의 속도, 잠재력, 스타일은 각기 다르다. 이 개별성을 인정하고 격려 할 때 어린이는 배움을 주도할 기회를 가지며, 내부로부터의 진정한 동기 유발이 일어날 수 있다. 교과 과정을 어린이들의 욕구에 따라 조절 협상할 능력이 있는 교사와 함께 있을 때 배움의 의욕이 어린이의 내부로부터 생성되어 지며, 그 욕구가 융통성있는 일과 중에서 존중될 때 자연스럽게 배움이 융성하게 된다.

셋째는, 반성적인 교수방법(reflective teaching)이다. Schon에 의하면 어린이를 위한 교사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즉,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교수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Schon은 활동에 대하여 아는 것(knowing in action)과 활동 순간의 반성적 적용(reflecting in action)을 대조시켜 교사의 능력을 구별한다.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존한다. 그래서 가르치는 동안 혹은 그 직전에 깊이 생각하는 일이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한다. 왜 어떤 특정한 행동이 어떤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언젠가 한번쯤은 이해했는지 모르나 그 이후로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는다. 아니면, 아마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 배우기는 했으나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결코 이해해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자신이 교육 현장에서 순간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왜 그 방법으로 하는지 효과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sup>36</sup>

<sup>35</sup> F. Franks, *The kindergarten system: Its origin and development as seen in the life of Friedrich Froebel* (London: Swan Sonnenschein & Co., 1897), p. 28.

<sup>36</sup> D. A. Schon,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San Francisco: Jossey-Bass, 1987).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교사는 활동 중에, 바로 그 시점에서, 반성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교사이다. 교사는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그 의도한 대로 효과를 얻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고, 방법이 달라질 때의 효과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방법을 다양화 시켜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이론의 실질적인 적용과 실험이 활동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다양한 교수법의 의식적인 개발 또한 필요하다.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의 터득이 없이는 결코 필요한 순간에의 방법 결정의 융통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가지 특성, 즉 교사와 어린이의 개별적인 관계, 비구조적 교과 과정, 그리고 반성적인 교수 방법이 다 포함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놀이를 학습의 주요 매체로 쓰는 아동교육 현상일 것이다. 어린이 놀이 속에서 교사는 그 어린이의 환경을 살펴 이해할 수 있어서 개별적인 관계 성립이 가능해지고, 놀이를 통한 비구조적인 학습구조안에서 교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각각의 수준, 속도, 성향에 따라 배우도록하는 융통성을 살릴 수 있으며, 그 융통성에 수반되어 생겨나는 여러 가능한 상황들이 반성적인 교수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의 놀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의 특성들을 고루 갖춘 능력있는 교사, 이제는 교육현장에 나서도 될 것인가? 다음 장에서 점검해 보기로 한다.

#### IV. 칼빈주의 유아교사

어린이 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성숙의 어린이를 성숙의 어른으로 이끄는 것이다. 한 어린이 주위의 성인들은 그 어린이가 아기의 상태로부터 장차 그가 되어야 할 어떤 성인으로 갖추어져 가는 과정을 인도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육에 관한 용어들, 예를 들면, 아이에게 가르치라(train up a child),<sup>37</sup> 자녀를 양육하라(bring them up in nurture),<sup>38</sup>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teach them

<sup>37</sup> 잠언 22:6.

<sup>38</sup> 에베소서 6:4.

diligently)<sup>39</sup>에서 보여주는 교육의 의미도 이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성숙의 상태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하여 사고, 감정, 의지 모든면에서 자가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로 자아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교육할 책임이 교회, 부모, 교육기관 모두에게 있다.<sup>40</sup>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는 교육기관이 이 책임의 큰 부분을 맡고 있다. 이 책임의 원리를 잊을 때 교육은 방향을 잃는다. 오늘날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국가도, 교회도, 부모도, 학교도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이러한 책임을 의식하고 책임을 다하여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기초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오직 이러한 신성한 책임에 헌신하는 기독교인 교사만이 이러한 교육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어떠한 교육기관이 이러한 막대한 과업을 다 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기준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삶의 진정한 완성은 주님 안에서의 성숙된 삶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기독교 교육기관이다. 이 곳에서 어린이는 그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궁극적인 그 자신을 인식한다.
2. 교육기관은 사회적 기관이며 인간 문화의 산물이다. 이 문화적 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활동으로 맺어진 열매이다. 그러므로 문화속의 여러가지 범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통한다. 예를 들면, 언어를 배움으로써 아이는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그의 경험과 연결시켜 해석하여 표현한다. 즉, 인간의 본성을 언어로 표현한다. 나아가서 언어는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주님 안에서 성숙된 삶을 살기위한 방법으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학교와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교육내용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다.
3. 교사에 관한 부분이다. 주님 안에서 능력있는 자라야 한다. 주님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숙한 자라야 하겠다. 기도의 경건함과 달콤한 시간 속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린이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이끌수 있겠는가? 교사의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그의 가슴 속에

<sup>39</sup> 신명기 6:7.

<sup>40</sup> 존 칼빈, 1990.

동거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응답인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열매여야 한다. 그 사랑은 교사가 주님과과의 매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함에 의해서 나날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어 자라난다. 교사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찾는 어린이 마음속에 따뜻한 신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교사의 신앙의 역동성이다.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교사의 삶의 자세가 어린이가 이러한 순종의 삶 속에서 안식을 구하려 할 때 그 어린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진실된 기독교 교리를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독교 교리를 명료하게 담았던 교리문답을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교사의 능력과 헌신이 요구되어진다. 교육을 학습의 현장에만 축소시키지 않고, 교회를 통한 모든 경험들 즉, 말씀의 가르침, 성경 읽기와 명상, 올바른 삶의 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배움의 과정을 사회적인 모임의 현장으로부터 스스로의 내재화의 시간을 거쳐 공적인 모임에서의 표현으로 연결시켰던 칼빈의 지속적, 통합적인 교육의 관점, 가르치는 자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도를 가지고 있을 때 효과적인 교수를 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인지, 행동적인 측면에 감정적인 면도 합해져야만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던 칼빈의 전인적인 교육의 목표,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인간다운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칼빈의 발달 적정성에의 깨달음, 이 모든 노력이 함께 교사의 헌신 속에 살려져야 한다. 이러한 교사가 바로 칼빈주의 유아교사이다. 이 교사는 또한 칼빈이 고심했었던 어린이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찾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리문답을 가지고 어린이에게 교리를 전하려 할 때, 어른이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과정 중에, 놀이하며 서로 서로에게 배우고 자기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린이가 하는 대답의 질은 달라질 것이다. 입으로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담기고 진정으로

<sup>41</sup> C. Jaarsma, *A Calvinistic progra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God-centered Living or Calvinism in Action*, Cha 5 (Grand Rapids, MI: Balsaer Book House, 1951), pp. 89-101.



느낀, 내용 있는 답이 될 수 있다. 생각과 느낌이 담겨야만 그 내용이 삶 속으로 연결이 되어 칼빈이 원했던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 즉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 때 어른의 질문은 많은 내용을 담지 않고, 그 내용의 한 가닥만 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때의 놀이는 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과 연결된 것이어야 하겠다. 교리문답의 내용에 맞추어 놀이 활동을 개발하여, 실제로 주일학교나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적용시켜보고 그 효율성을 검토하는 현장연구(Action-research)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직업적, 학문적으로 교사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준비가 적절히 쓰이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은 바로 교사의 신앙의 능력이다. 교사는 어린이들을 신앙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하고, 교육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 뼈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 교육기관은 기독교인 교사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에 노력할 것을 믿고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맡기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성령으로 교육되며 이 학교의 번영은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의 사람을 모으신다. 학문적, 신앙적 능력을 갖추고 광신(光神)의 문을 나서게 될 미래의 교사들은 자신에게 진지하게 다음의 질문을 해보기 바란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육의 일을 하는 특권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